

5 분 자 유 발 언

-정월대보름 달집 태우기행사 보조금 상향조정 제안-



고성군의회
(김희태 의원)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김희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매년 음력 1월 15일 열리는
정월대보름 달집 태우기 행사 보조금의 상향
조정이 시급함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통 달맞이를 하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전통적
으로는 설날보다 더 성대하게 지내기도 했던
명절이었습니다.

원래는 설날부터 대보름까지 15일 동안 축제일이
었으며, 이 시기에는 빗 독촉도 하지 않는다는 말
이 있었을 정도로 옛날에는 큰 축제였습니다.

부럼, 오곡밥, 약밥, 귀밝이술, 김과 취나물 같
은 묵은 나물 및 제철 생선 등을 먹으며 한 해의

건강과 소원을 빕니다.

또한 액막이 연, 달집 태우기와 같은 행사와 다양한 놀이를 하였는데, 이 풍속들은 오늘날에도 일부 이어져 행해지고 있습니다.

지역별, 마을별로 제사를 지내는 곳도 있습니다. 예로부터 정월 대보름에는 한 해의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과정에서 한 해의 운수를 점치기도 하였습니다.

다양한 민속놀이를 해왔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잊히거나 사라진 민속놀이가 많습니다. 그러나 강원 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월대보름제는 지역축제로 인지도를 높였고 경상북도 안동시의 안동차전놀이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지역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우리 고성군의 정월대보름제 행사인 달집 태우기 행사는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한 해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민속놀이인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놀이, 노래자랑 등과 풍성한 먹거리로 군민들에게 화합의 장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군에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고물가 시대에 모자라는 보조금으로 장비 대여, 식재료 등 임대 및 구입에 청년회, 청실회, 등지회, 대보름회 등 자원봉사 단체들의 애로사항이 많은 상황입니다.

기후 온난화로 인하여 비가 많이 와서 달집이 물에 빠져 있어도, 날씨가 영하로 내려가도, 마을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의 노력 끝에 문제없이 행사를 치르는 지역도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달집 태우기 행사에 지역민들이 애착을 가지고 단합하여 행사를 치르고 있지만 보조금 부족 문제가 지속되면 자칫 고성군 정월대보름 달집 행사가 사라질까 우려스럽습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고성군은 행사·축제 경비 비율이 경상남도 지자체 중 2위로 높은 수준입니다.

고성군에서 지원하는 많은 축제와 행사들의 규모, 성격 등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 및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해야 하지만, 현 실정은 1시간에서 2시간 만에 끝나는 행사에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으며, 정월대보름 달집 태우기 행사는 일주일이라는 긴 행사 준비 기간에도 얼마 되지 않은 보조금으로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찬조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중한 전통문화 체험과 향토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해서는 달집 태우기 행사 보조금을 상향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유사한 행사들의 통폐합을 통해서 정월대보름 달집 태우기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 및 지원하여 정월대보름에 우리가 즐기는 여가 및 관광 그리고 교육의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전통 민속놀이와 관련된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사라

지고 있는 고성군의 전통 민속놀이를 우리의 것으로 찾아내 지역 관광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정월대보름제 달집 행사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신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